

고령자의 퇴직 이후 삶과 일에 대한 인식

- 고령자의 은퇴 준비 수준을 살펴보면, '준비하고 있다'는 응답은 31.1%로 낮고, 나이가 많을수록, 학력이 낮을수록 '준비하고 있지 않다'의 비율이 높음.
- 고령자의 퇴직 후 삶-일 인식에 따라 휴식형(28.6%), 방어형(24.6%), 활동형(20.5%), 혼란형(19.6%), 좌절형(6.8%)의 5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음.
- 유형별 퇴직 준비 비율은 활동형(39.0%)이 가장 높고, 그 다음은 방어형(30.1%), 좌절형(30.0%), 혼란형(28.0%), 휴식형(25.0%) 순으로 나타남.
- 고령자의 경우 삶-일에 대한 인식의 5가지 유형별로 주요 일자리 특징이 다르며, 직업교육 준비 주체에 대해서도 각기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직업교육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.

주

이 글은 '이수정 외(2018), 『저출산·고령사회 대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체계 구축』,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일부 내용을 발췌 재구성함.

각주

- 1) 이는 「고령자고용법 시행령」에 따른 '고령자' 범위인 '55세 이상인 사람'과 다양한 노인 관련 연구에서 정의된 young old(65~74세)의 범위에 따라 '74세 이하'로 한정함.
- 2) 설문 대상의 연령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각 범주에서 성별과 퇴직 여부를 변인으로 설정하고, 55세 이상 인구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서울·인천·경기(수도권) 46.4%, 부산·울산·경남(동남권) 16.9%, 대구· 경북·강원(경상·강원권) 14.4%, 대전·세종·충남·충북(충청권) 10.1%, 광주·전북·전남·제주(호남·제주권) 12.2%를 대상으로 함.

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

고령자의 퇴직 후 삶과 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고령자 특성을 유형화하여, 고령자의 삶-일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직업교육 정책 발굴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.

- 저출산·고령화로 인해 개인의 길어진 삶은 사회적 참여, 건강한 노후,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지속할 때 가치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.
- 국가는 저출산·고령사회라는 변화에 국민이 적응하도록 도와야 하는 주체이므로, 고령자를 '새로운 인적 자원'으로 인식하고, 학습과 직업교육(훈련)을 통한 노후 대비가 가장 효과적인 고용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 되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.
- 이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삶-일의 특성과 요구를 살펴보기 위하여 고령자의 은퇴 준비, 직업교육의 필요성과 참여의사, 그리고 현재 재직 여부, 고용 형태, 주요 일의 특징, 퇴직 후 희망하는 일의 특징 등을 조사함.

분석 자료: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「저출산·고령사회 대비 직업교육체계 구축(2018.6)」

● 분석 대상

- 55세 이상 74세 이하¹⁾의 고령자 800명²⁾을 대상으로 2018년 6월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, 고령자 특성을 고려하여 면대면으로 실시함.

〈표 1〉 설문 대상

(단위: 명)

구분	55 ~ 59세				60 ~ 69세				70 ~ 74세			
	퇴직 전		퇴직 후		퇴직 전		퇴직 후		퇴직 전		퇴직 후	
	남	여	남	여	남	여	남	여	남	여	남	여
표본 수	70	70	30	30	100	100	100	100	30	30	70	70
총합	200				400				200			



KRIVET 모바일 앱

● 분석 방법

- 빈도분석, 교차분석, t-test, oneway ANOVA, 군집분석 등을 적용함.
- 구체적인 변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(성별, 나이, 학력, 혼인 상태, 가족 형태, 거주지), 경제와 건강(주관적 건강 상태, 주관적 경제 상태), 현재 일의 여부, 퇴직 후 일 희망 여부, 주요 일 형태와 직종, 퇴직 이후 희망하는 일의 형태와 직종 등임.
- 고령자의 퇴직 이후 삶-인식의 4가지 하위 구인과 일 헌신 변인 총 5가지의 하위구인으로 K-mean 군집 분석을 활용하여 퇴직 후 삶-일에 대한 인식을 유형화함.³⁾
- 본 연구에서 조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삶에 대한 인식을 요인분석한 결과, 새로운 출발과 경력의 완성이 하나의 구인으로 묶여 총 4개의 하위 구인(긍정적 인식, 무변화, 휴식, 강요된 좌절)으로 구분되어 이를 활용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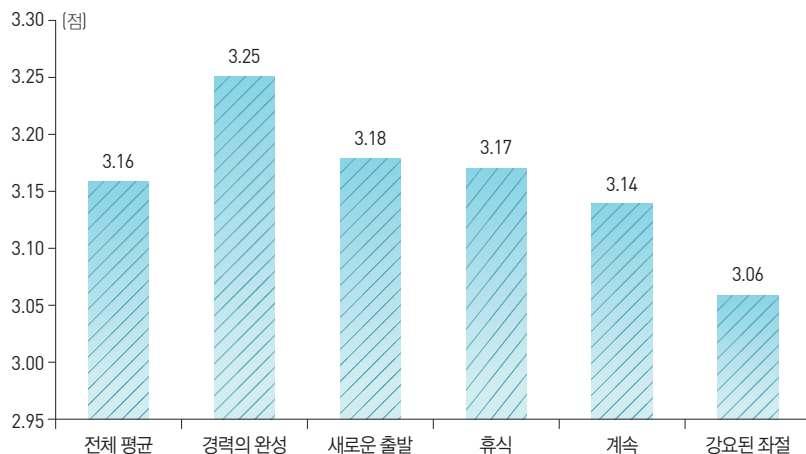
| 각주 |

3) K-mean 군집분석의 경우 연구자가 임의로 군집의 개수를 지정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특성을 반영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군집의 개수인 4개와 5개를 임의로 지정함. 이후 분석결과 5개의 군집한 결과 유형의 특성이 더 다양한 의미로 구분되어 이를 채택함.

02 고령자의 퇴직 이후 삶, 일에 대한 인식

| 고령자는 퇴직 후 삶에 대해 경력의 완성, 새로운 출발, 휴식, 계속, 강요된 좌절로 인식하고 있으며 성별, 나이, 학력, 가족 형태별로 차이가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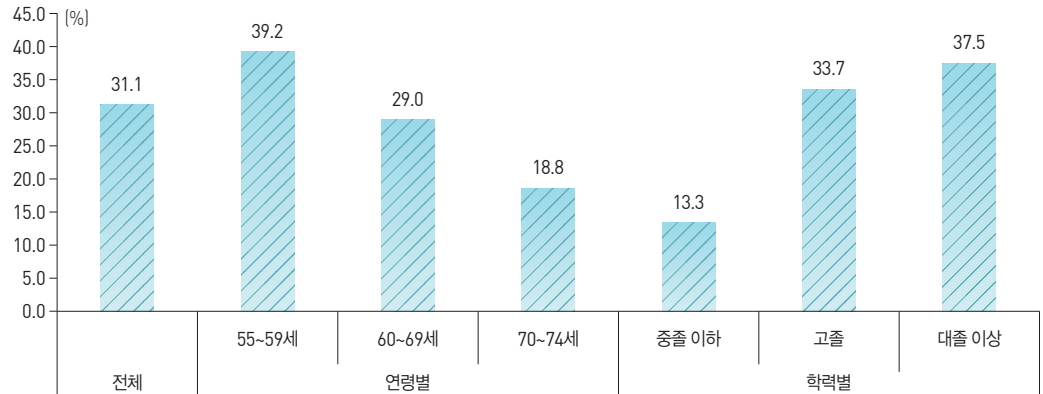
- 고령자의 퇴직 이후 삶에 대한 인식은 '경력의 완성(3.25점)'이 가장 높고, 그 다음으로는 '새로운 출발(3.18점)', '휴식(3.17점)', '계속(3.14점)', '강요된 좌절(3.06점)' 순으로 나타남.
- 성별로는 남자가 퇴직 이후의 삶을 '강요된 좌절'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 반면, 여자는 '휴식'으로 여기는 경향이 높음.
- 연령별로는 70~74세는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퇴직 이후의 삶을 '휴식'으로 여기는 경향이 높음.
- 학력별로는 무학, 초졸, 중졸인 집단이 대학원졸 이상인 집단에 비해 퇴직 이후의 삶을 '휴식'으로 여기는 경향이 높음.
- 가족 형태별로는 부부단독세대가 부모+미혼 자녀 가구, 1인 가구, 3세대 이상 가구, 기타 가구 등에 비해 퇴직 이후의 삶을 '강요된 좌절', '새로운 출발', '휴식'으로 여기는 경향이 높음.



[그림 1] 퇴직 이후 삶에 대한 인식

| 고령자 중 퇴직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비율은 31.1%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, 나이, 학력, 가족 형태별로 차이가 있음.

- 고령자 중 퇴직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.1%에 불과하며,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퇴직 준비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.
- 이혼하거나 결혼한 적이 없는 고령자는 기혼에 비해 퇴직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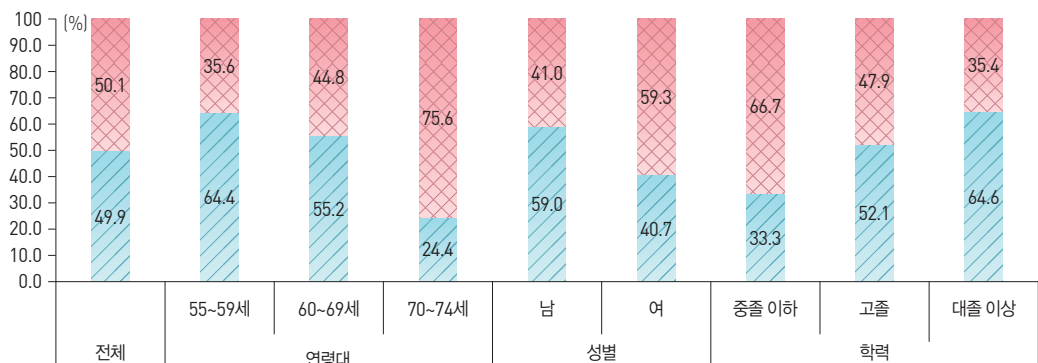


[그림 2] 퇴직 준비 비율

- 퇴직 이후를 준비하지 않는 이유로는 '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(29.5%)'가 가장 많고, '경제적 여유가 없어서(20.5%)', '준비해도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(15.5%)', '어떤 일을 하게 될지 결정하지 못해서(15.1%)'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고령자의 경우 퇴직 이후 일에 대한 희망 여부는 성별, 나이, 학력, 가족 형태, 현재 거주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.

- 노년기에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(49.9%)과 일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비율(50.1%)이 비슷함.
 - 55~59세(64.4%), 60~69세(55.2%)는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, 70~74세의 경우 일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비율(75.6%)이 더 높음.
- 남자는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(59.0%)이 높은 반면, 여자는 일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비율(59.3%)이 더 높음.
 - 특히 남자는 나이가 적고, 주관적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, 그리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, 노년기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중졸 이하의 학력이 낮은 고령자의 경우 일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비율(66.7%)이 높은 반면, 고졸 이상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(고졸: 52.1%, 대졸 이상: 64.6%)이 더 높음.



[그림 3] 노년기에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

각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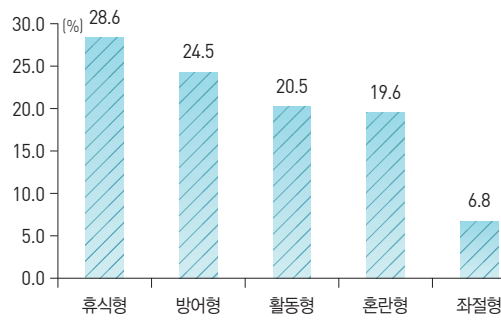
4) <퇴직 후 삶-일 인식의 유형별 정의>

- 휴식형: 퇴직을 받아들이고 퇴직 이후에는 활동보다는 쉬면서 휴식하고자 하는 유형
- 방어형: 퇴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나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수준도 높아 긍정적인 기대와 부정적인 인식이 공존하는 방어적 유형
- 활동형: 퇴직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현재처럼 지속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유형
- 혼란형: 퇴직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이 없이 모든 상황에 대해 고려해보고자 하는 유형
- 좌절형: 일에 대한 헌신도는 높으나 퇴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유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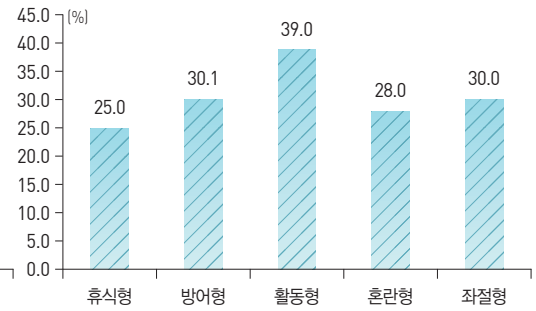
03 고령자의 퇴직 후 삶-일 인식의 유형화 및 유형별 특징

고령자는 퇴직 후 삶-일 인식에 따라 5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, 유형별 주요 일자리 특징 및 직업교육 준비 주체에 대해 다르게 인식함.

- 고령자의 퇴직 후 삶-일 인식은 5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, 휴식형이 28.6%로 가장 많고, 그 다음은 방어형(24.5%), 활동형(20.5%), 혼란형(19.6%), 좌절형(6.8%) 순으로 나타남.⁴⁾
- 고령자의 퇴직 후 삶-일 인식에 따른 유형별 퇴직 준비 비율은 활동형(39.0%)이 가장 높고, 그 다음은 방어형(30.1%), 좌절형(30.0%), 혼란형(28.0%), 휴식형(25.0%) 순으로 나타남.



[그림 4] 퇴직 후 삶-일 인식 유형별 비율



[그림 5] 퇴직 후 삶-일 인식 유형별 퇴직 준비 비율

- 고령자의 삶-일 인식 유형별로 주요 일자리 특징 및 직업교육 주체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남.
 - 휴식형은 영업, 서비스, 경영, 행정직에 종사하고, 상용직/전일제 비율이 높으며, 직업교육 준비 주체를 개인으로 인식하고 있음.
 - 방어형은 경영, 행정, 연구직에 종사하고, 상용직/전일제 비율이 높으며, 직업교육 준비 주체를 개인, 정부로 인식하고 있음.
 - 활동형은 영업판매, 음식서비스, 생산직에 종사하고, 상용직/전일제 비율이 낮으며, 직업교육 준비 주체를 정부로 인식하고 있음.
 - 혼란형은 영업판매, 음식서비스, 청소, 생산직에 종사하고, 상용직이 낮고, 전일제가 높으며, 직업교육 준비 주체를 정부, 개인으로 인식하고 있음.
 - 좌절형은 생산, 영업판매, 제조직에 종사하고, 상용직/시간제 비율이 높으며, 직업교육 준비 주체를 개인으로 인식하고 있음.

〈표 2〉 고령자의 삶-일 인식 유형별 주요 일자리 특징 및 직업교육 주체에 대한 인식

유형	주요 일자리 특징	직업교육 준비 주체에 대한 인식
휴식형	영업, 서비스, 경영, 행정 직종 비율 높음, 상용직/전일제 비율 높음	개인
방어형	경영, 행정, 연구직 직종 비율 높음, 상용직/전일제 비율 높음	개인, 정부
활동형	영업판매, 음식서비스, 생산직종 비율 높음, 상용직/전일제 비율 낮음	정부
혼란형	영업판매, 음식서비스, 청소, 생산직종 비율 높음, 상용직 낮고, 전일제 높음	정부, 개인
좌절형	생산, 영업판매, 제조 직종 비율 높음, 상용직/시간제 비율 높음	개인

04 시사점

- 저출산·고령사회에서 국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학습과 직업교육(훈련)을 통한 노후 대비를 지원하는 것임. 이는 가장 효과적인 고용 정책이자 복지 정책임.
- 고령자의 삶과 일에 대한 인식은 성별, 학력, 나이, 가족 형태, 현재 일의 특성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. 따라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(훈련)지원 체계를 마련하기에 앞서 고령자 집단을 하나의 단일 집단으로 규명하지 말고 여러 기준을 활용하여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. 왜냐하면 개인별 주된 일자리에서의 경력경로, 개인별로 처한 경제적, 가정적 여건과 삶을 대하는 태도 및 가치에 따라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방향성이 달라짐.
- 이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특성과 직업교육(훈련)에 대한 요구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‘교육-고용-복지’가 연계된 직업교육(훈련) 방안을 제안함. 이를 위해 향후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령자의 특성을 구명해야 하며, 같은 상황과 요구를 가진 집단을 구분해내고 퇴직 이후 만족스러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.

이 수 정 (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)